

폭발

손흥민 EPL 에버턴전 결승골
홈 5경기 연속 득점·시즌 11호
프리미어리그 14년만에 대기록

이번에도 웨블리 스타디움의 주인공은 손흥민(26·토트넘)이었다.

안방인 웨블리 스타디움에서 손흥민이 맹활약을 이어가며 홈 팬들에게 팀의 대표 스타임을 다시 한 번 각인했다.

손흥민은 14일 영국 런던의 웨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에버턴과의 2017-2018 프리미어리그 23라운드 홈경기에서 0-0으로 맞선 전반 26분 결승 골을 폭발했다. 올 시즌 전체 11호이자 리그에선 8번째 골이다.

특히 이번 골은 손흥민이 웨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5경기 연속 득점이라는 의미를 지녔다.

토트넘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홈경기에서 5경기 연속 골을 터뜨린 건 이전까진 2004년 저메인 데포가 유일했다.

손흥민은 지난달 10일 스토크시티전을 시작으로 14일 브라이턴 호브 알비온, 26일 사우샘프턴전, 이달 5일 웨스트햄전까지 프리미어리그 홈 4경기에서 연속 골을 기록 중이었다.

이 때문에 이번 경기를 앞두고 프리미어리그 공식 홈페이지가 전하는 경기별 관전 포인트에선 손흥민의 '홈 5경기 연속 득점'에 초점이 맞춰져 그의 위상을 드러냈다.

웨스트햄전에서 극적인 동점 골로 패배 위기에 놓인 팀을 구했던 손흥민은 이날도



손흥민이 14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웨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에버턴과의 2017-2018 프리미어리그 23라운드 홈경기에서 전반 26분 0-0 균형을 깨뜨리는 선제 결승 골을 기록한 뒤 프리미어리그 홈 5경기 연속골을 나타내는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버턴과 0-0으로 맞선 상황에서 첫 골로 불을 붙이고 14년 만에 대기록의 주인공도 됐다.

이어 손흥민은 후반 2분 화려한 개인기로 에버턴 수비를 무력화하고 득점 기회를 만들어내 해리 케인의 두 번째 골이 나오게 발판을 마련했다.

중원에서 불을 붙인 손흥민은 순간적으로 돌아서면서 수비를 완전히 제쳤고, 페

널티 지역에 진입하면서 다시 수비를 따돌리고 강한 킥을 날려 케인의 골을 어시스트했다. 직접 골로 마무리하진 못했지만, 그의 능력이 심본 발휘된 장면이었다.

이 외에 손흥민은 후반 13분엔 골대를 맞히고, 후반 36분엔 크리스티안 에릭센이 기록한 추가 골의 기점이 되는 패스를 보내는 등 경기 내내 활발한 움직임으로 환호를 자아냈다.

유럽 진출 이후 최고의 경기 중 하나로 꼽히며 손색이 없었던 활약 속에 손흥민은 이날 웨블리 스타디움에 모인 7만 6000여 명의 팬 앞에서 자신의 입지를 분명히 했다.

이날 골로 토트넘 소속으로 각종 대회를 통틀어 40번째 득점을 기록한 손흥민은 유럽 최고의 리그 중 하나로 꼽히는 프리미어리그에서 두 시즌 연속 10골 돌파도

눈앞에 뒀다.

2015년 독일 바이어 레버쿠젠에서 토트넘 유니폼으로 갈아입은 그는 첫 시즌은 2015-2016시즌 리그에서 4골에 그쳤으나 지난 2016-2017시즌엔 팀의 주축으로 자리 잡으며 14골을 터뜨렸다. 이번 시즌엔 23라운드까지 리그 8호 골을 기록 중이다.

한편 이날 손흥민은 골을 터뜨리고 리그 홈 5경기 연속 골을 상징하는 듯 양 손가

락을 활짝 펴 보이는 세리머니를 펼쳤다.

이에 대해 손흥민은 "사실 기록에 대해 알지 못하다가 경기 전에 누군가 얘기해줘서 알게 됐다. 그래서 그런 세리머니를 하겠다고 생각했다"며 "웨블리에서 항상 최고의 기량을 보여주려고 한다. 지금까지는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 다음 경기를 기다린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출발

분데스리가 구자철 시즌 1호골

독일 분데스리가 아우크스부르크의 구자철이 시즌 첫 골을 터뜨렸다.

구자철은 14일 독일 아우크스부르크 임폴스 아레나에서 열린 분데스리가 18라운드 함부르크와 홈경기에서 0-0으로 맞선 전반 45분 절묘한 헤딩슛으로 골을 기록했다. 아우크스부르크는 1-0으로 승리했고, 구자철의 득점은 결승 골로 기록됐다.

구자철은 올 시즌 주로 수비형 미드필더로 출전해 득점 기회를 많이 잡지 못했다.

그러나 후반기 첫 경기인 함부르크전에선 2선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선발 출격하며 뒤적뒤적 공격으로 첫 골을 생산했다. 그는 전반 45분 페널티 지역 중앙으로

쇄도해 팀 동료 카이우비의 왼쪽 크로스를 헤딩으로 연결해 골망을 흔들었다. 수비수와 몸싸움을 이겨내고 정확한 슈팅으로 골 맛을 봤다.

구자철의 활약은 계속됐다. 그는 후반 23분 스투라스를 받아 오른쪽 측면을 돌파한 뒤 골라인 인근에서 크로스를 날리기도 했다. 그의 패스는 다니엘 바이어의 슈팅으로 이어졌다. 골로 연결되지는 않았지만, 구자철의 집념을 살펴볼 수 있는 장면이었다.

체력이 떨어진 후반 막판에도 활발하게 움직이며 측면 공격의 선봉에 섰다.

한편 팀 동료 지동원은 출전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연합뉴스

분발

부상 복귀 기성용 풀타임 출전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스완지시티에서 뛰는 기성용이 부상에서 복귀해 활발한 플레이를 펼쳤다.

기성용은 14일 뉴캐슬과 2017-2018 정규리그 23라운드 원정경기에서 풀타임 출전했다. 스완지시티는 4-1-4-1 전술을 펼쳤는데, 기성용은 중앙 미드필더로 출전해 공수를 조율했다.

기성용은 종아리 부상으로 지난달 19일 에버턴과 경기 이후 약한 달 만에 출격했다. 그의 플레이엔 오랜 공백이 느껴지지 않았다. 뒷선에서 날카로운 패스로 경기를 지휘했고, 적극적인 공격 참여로 팀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전반 35분엔 페널티 아크 오른쪽에서 흘

러나온 공을 강한 슈팅으로 연결했다. 슈팅이 수비수를 맞고 나오자 재빨리 다시 공을 잡아 오른쪽 측면으로 공을 넘겨 공격을 이어갔다.

특히 이날 스완지시티의 많은 세트피스는 기성용의 발끝에서 시작했다.

기성용은 전반 추가시간 왼쪽 코너킥 킥으로 나서 정확하게 공을 띄웠다. 크로스는 카일 바틀리의 헤딩슛으로 연결됐는데, 골대 위로 살짝 넘어가 아쉬움을 남겼다.

후반전에도 기성용은 프리킥과 크로스를 전담했다. 후반 34분 후반에서 프리킥을 날려 바틀리의 헤딩슛을 끌어냈다.

한편 스완지시티는 이날 경기 후반 15분 조르당 아우의 선취골로 앞서갔지만, 8분 뒤 상대 팀 호세루에게 동점 골을 허용했다. /연합뉴스

4km 달리기서 생존하라

KIA 18일 체력 테스트 통해 스프링캠프 최종 명단 결정

챔피언스 필드에 최강 한파도 잊게 한 4km 질주가 펼쳐지고 있다.

프로야구 선수들에게 1월은 휴식기이다. 2월 1일 훈련이 공식적으로 진행되기 전까지 선수들은 '자유의 몸'이다.

하지만 쉬는 게 쉬는 게 아닌 선수들이다. 내부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챔피언스 필드를 비롯한 곳곳에서 KIA 선수들은 개인 훈련을 하며 2018시즌을 준비하고 있다. 여기에 '체력 테스트'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의 몸과 마음이 더 바쁘다.

KIA 선수들은 오는 18일 체력테스트를 위해 새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다.

김기태 감독은 고향집 지휘봉을 잡은 뒤 2015년과 2016년 체력테스트를 진행했다. 체지방율, 근육량 등을 측정하는 인바디 검사에 이어 4km 러닝을 통해 선수들의 몸 상태를 점검하고, 스프링캠프 최종 명단을 작성했다.

2015년에 김진우가 체력테스트에서 불합격하면서 오키나와 캠프에서 탈락한 적도 있다. 2016년에는 전원 합격했고, 지난 시즌에는 체력테스트는 없었지만 선수들이 알아서 자율 훈련을 하면서 캠프 준비를 했다.

올 시즌에는 우수 후 새 마음으로 새 출발 하는 자리로 체력테스트가 부활했다. 앞선 두 번의 체력테스트 때와 마찬가지로 선수들을 긴장하게 항목은 '4km 달리기'이다.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이뤄지는 4km 달리는 나이에 따라 ▲27세 이하 ▲28-33세 ▲34세 이상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27세 이하 야수들은 19분, 28-33세는 20분 안에 결승선을 통과해야 한다. 여기에 투수들은 30초 더 단축된 기록 안에 들어와야 한다. 34세 이상은 포지션에 상관없이 23분이라는 시간을 갖는다.

달리기가 캠프에서는 물론 시즌에도



KIA 임기영(오른쪽)과 김지성이 지난 12일 챔피언스필드 콘코스에서 워킹 카운터를 가지고 달린 거리를 측정하고 있다.

중요 훈련 부분이지만 장거리는 익숙지 않은 선수들이다. 덕분에 KIA 선수들은 요즘 달리기 삼매경에 빠졌다.

광주에 한파와 함께 폭설이 내렸던 지난 주말에도 선수들의 달리는 계속됐다.

챔피언스필드 외야가 평소 달리기 훈련 장소였지만 때문에 그라운드 출입이 불가능해지면서 선수들은 경기장 3층 콘코스를 훈련 장소로 선택했다.

임기영, 한승택, 김지성도 새 팀에서의 첫 체력 테스트를 위해 구슬땀을 흘린 선수들이다. 나란히 FA 보상 선수로 한화에서 군 복무 뒤 건너온 한승택과 임기영은 각각 부상과 군복무로 새 팀에서 체력 테스트를 치르지 않았었다. 지난 시즌 KIA에서 기회를 얻은 김지성도 새 팀에

서의 첫 달리기다.

칼바람을 뚫고 콘코스를 열심히 달리던 세 사람은 '워킹 카운터'를 챙겨 들고 직접 자신들이 달린 거리를 측정하기도 했다.

한승택은 "열심히 뛰었다고 뛰었는데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정확한 거리를 재봤다"며 "새 시즌 목표들을 세웠는데 체력테스트를 통과하는 게 먼저다"고 웃었다.

임기영은 "생각보다 어렵다. 체력 테스트(한)승력이 형이나(홍)건의 형만 보면서 달려야겠다"고 언급했다. 김지성도 "LG 시절에 뛰어본 적이 있다. 당시 탈락한 주전 선수들이 캠프에 못 가기도 했다"며 긴장감을 보였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KIA 김선빈 득남

KIA 타이거즈의 '작은 거인' 김선빈(사진)이 아빠가 됐다.

그는 지난 12일 오후 5시 49분 광주의 한 병원에서 2.6kg의 건강한 아들을 얻었다.

김선빈은 앞서 지난 2016년 12월 상무에서 제대한 뒤 송미지씨와 결혼식을 올리고 '폼질남'이 됐다.

결혼 후 맞은 복귀 시즌에서 타격왕, 팀 우승, 골든 글러브 수상 등 최고의 한 해를 보냈던 김선빈은 새해에는 첫아들까지 얻으면서 경점사를 맞았다.

김선빈은 "팀에서도 중고참으로 역할이 막중한데 아빠까지 돼서 올 시즌 책임감이 더 큰 것 같다"며 "좋은 남편, 아빠, 선수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 해가 되겠다. 특히 지난 시즌을 돌아보면 수비가 가장 아쉬운데, 올 시즌에는 안정감 있는 수비로 팀 승리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